담화에서의 언어 표현의 선택*

-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의 담화 분석 -

최동주**

〈차 례〉

1. 머리말
2. 자료와 방법론
3. 텍스트의 분석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2) 수식어의 선택과 동일 구조의 반복
  3) 문법적 장치들
  4) 단어의 선택과 세계, Discourse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여수엑스포 길라잡이』를 분석하여 담화에서 단어, 문장 구조 및 문법의 선택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필자)는 1)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며, 2)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사건 및 개념 사이에 연결을 만들고, 동일 구조를 사용하여 강화하기도 하며, 3) 시제, 상대높임법의 선택에 의해 생생하게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현하거나 강조하기도 하고, 독자와의 거리를 조절하기도 하며, 4) 단어나 구의 선택에 의해 의도한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Discourse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 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장 문법만으로는 언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 주며, 따라서 한국어의 특성을 적절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담화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담화분석, 상호텍스트성, 문장 구조의 선택, 동일구조의 반복, 시제 및 상대높임법의 기능

1. 머리말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고립된 문장을 자료로 하는 '문장 언어학'은[1]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양상을 세밀히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장 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비문법적인 표현이지만 담화에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담화에서의 쓰임을 문장 언어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장 언어학의 이러한 한계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한국어에 대한 추상적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법적인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황의 특성과 담화적 기능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문장 언어학적 지식을 너머 그보다 더 많은 것

1) Cook, G., *Discourse*, Oxford Univ. Press, 1989, pp. 10-12.

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2)]

본고는 국어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문장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시도로서, 『여수엑스포 길라잡이』(2012.4.23. 2판 2쇄)(이하 '길라잡이'로 줄임)에 실린 텍스트를[3)] 담화분석적 방법으로 고찰하여, 단어, 문장 구조, 문법 등 언어 표현의 선택이 담화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바는 국어 사용 양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국어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료와 방법론

다음은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길라잡이'의 뒷표지에 실린 텍스트를 옮긴 것이다.

(1) ① '꿈을 가져라' 백 번 말하기보다
'꿈의 박람회' 한 번 보여주세요!

②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본 구스타프 에펠은 1889년 다시 열린 파리박람회에서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③ 1970년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운 다나카 고이치는 2002년 샐러리맨 과학자로서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④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꿈돌이를 만난 청소년들은 오늘날 세계 정상의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

2) Cook, G. ibid., p. 3.
3) '길라잡이'에 실려 있는 글들을 '텍스트'로 부르기로 한다.

⑤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19년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놀라운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2050년 미래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즐기는 생생한 교육의 장입니다.

⑦ 미래의 주역들이 세계박람회를 체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1)은 100여개(조사 제외)의 단어,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이다. ①은 제목으로, 2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글자 크기가 다른 문장의 글자보다 크다. 본문은, ⑤와 ⑥ 사이, 그리고 ⑥과 ⑦ 사이에는 1행씩 비워져 있는 반면, ③과 ④ 사이에는 행이 비워져 있지 않으며, 내용상 ②~⑤를 하나의 문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③과 ④의 사이에서 문단이 나누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문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텍스트의 실제 모습을 스캔하여 참고문헌 뒤에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1)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1)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는, '길라잡이'의 다른 글도 폭넓게 참고하게 될 것이다.

Johnstone은 담화분석자들이 묻는 기본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4)]

(2) Why is this stretch of discourse the way it is? Why is it no other way? Why these particular words in this particular order? (이 일련의 담화가 왜 이러한 모습인가? 왜 다른 방식이 아닌가? 이 단어들은 왜 이 순서로 되어 있는가')

4) Johnstone B., *Discourse Analysis*(2nd edition), Blackwell, 2008, p. 9.

언어 사용은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끊임없는 언어적 선택을 전제한다.[5]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느 경우든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질문할 수 있다.

(3) 화자는 이 일련의 담화를 왜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하였는가? 왜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화자는 이 단어들을 왜 이 순서로 배열하였는가?

본고에서는 담화에서 선택된 언어 표현을 단서로 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화자는 어떠한 Discourse를 사용하는지[6]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텍스트의 분석

본 장에서는 (1)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어떠한 장치나 표현들이 쓰였으며, 그 기능은 어떠한지 세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논

---

5) Gee, J. P., *How to do Discourse Analysis – A Toolkit*. Routledge, 2011, p. 52. 한편 Verschueren은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선택은 구조의 가능한 모든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2) 화자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략도 선택한다. 3) 선택이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다. 4) 발화의 산출에서 뿐만 아니라 이해에서도 선택이 이루어지며, 양자가 의사소통의 흐름 및 의미 생성에 모두 중요하다. 5) 언어 사용자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6) 선택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7) 선택은 그에 대비되는 다른 항을 환기시킨다 (Verschueren, J., *Understanding Pragmatics*, Hodder Education, 1999. pp. 55-58).

6) Gee는 '사회적으로 인지가능한 정체성'(socially recognizable identity)을 실연(enact)하기 위하여 언어, 행위, 상호작용, 사고, 신념 등을 통합하는 방식을 'Discourse'(대문자 'D')라고 부르고 'discourse'와 구별한다(Gee, J. P., ibid., pp. 28-29).

의의 편이를 위해 해당 표현과 관련되는 현상을 개념의 층위와 상관없이 소제목으로 붙여 제시하기로 한다.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다음은 (1)의 ①을 옮긴 것으로 (1)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4) ① '꿈을 가져라' 백 번 말하기보다
'꿈의 박람회' 한 번 보여주세요!

(4)는 명령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누구에게 '꿈의 박람회'를 보여주라는 것인지 드러나 있지 않으나, '꿈'과 같은 단어의 선택에서나, 이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1)의 의도된 독자는 청소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또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4)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의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을 변형한 것이다. '듣는 것'(聞)과 '보는 것'(見)이 각각 '말하기'와 '보여주세요'로 변형되었는데, 이는 의도된 독자가 청소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인 데 기인한다. 이처럼 다른 텍스트의 표현에 변형을 가하거나 그대로 옮겨 활용하는 것을 '상호텍스트성' 또는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고 한다.[7] 독자로 하여금 '박람회를 보여 주는 것'이 낫다는 필자(이하 '필자'나 '화자'를 모두 '화자'로 부름)의 생각에 좀더 자연스럽게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익숙한 텍스트인 '백문불여일견'을 활용한 것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에서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대상이

7) 고영근,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 514. ; Gee, J. P., ibid., p. 29.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에서는 '말하는 것'(듣게 하는 것)의 내용은 '꿈을 가져라'이고 '보여 주는 것'은 '꿈의 박람회'로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은데, 이는 '백문불여일견'에 익숙한 독자로 하여금 '꿈의 박람회'를 한 번 보는 것이 '꿈을 갖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은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친숙한 활동이나 친숙한 문체, 형식 등을 참고하여 담화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한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8] (4)에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활용한 것은, 독자로부터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한편으로 '박람회 체험'과 '꿈을 갖게 함'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수식어의 선택과 동일 구조의 반복

앞에서 (1)의 화자가 '꿈의 박람회'를 보는 것이 '꿈을 갖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5)는 (1)의 ②를 옮긴 것으로, 엑스포 체험이 '꿈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꿈을 이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5) ②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본 구스타프 에펠은 1889년 다시 열린 파리박람회에서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5)에서 '구스타프 에펠'을 수식하고 있는 밑줄 친 부분은 관형

8) Johnstone B., op. cit., p. 16.

절이다.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상황은 서술부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을 보자.

(6)ㄱ.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더 잡는다.
ㄴ. 바보 같은 철수는 영희의 제안을 거절했다.

(6ㄱ)에서 '새'가 '벌레를 더 잡는 것'은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며, (6ㄴ)에서 '철수'가 '영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철수'가 '바보' 같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9] (6)에서 유의할 점은 (6ㄱ)이나 (6ㄴ)에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상황과 서술부의 상황을 인과 관계로 해석하도록 하는 어떠한 문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6)이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것은 독자의 추론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6ㄱ)을 본 독자는 세계에 관한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이 '벌레를 더 잡는 것'의 원인인 것으로 추론하게 된다.[10] 관형절의 상황이 뒤에 언급되는 서술부의 상황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두 상황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다.[11] 따라서 (6)과 같은 표현은 두 상황 사이의 관계를

9)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상황이 항상 서술부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며, (6)에서처럼 '원인'으로만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밥을 다 먹은 철수는 대문을 나섰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밥을 다 먹은 것'이 '대문을 나선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밥을 두 그릇이나 먹은 철수가 또 라면을 먹고 있다'에서는 관형절의 상황이 서술부 상황과 '양보'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10) Brown & Yule은 독자가 화자의 의도를 해석할 때 응집성(coherence)에 대한 가정, 유추의 원리, 국부적 해석, 맥락의 일반적 특성, 담화 구조의 규칙성, 정보구조 조직의 규칙적 특성, 관습적 사회-문화적 지식, 메시지의 목적과 기능 등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 Press, 1983, p. 225).

11) Brown & Yule은 어떤 두 문장이 인접해 있으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시적 표지가 없더라도 독자는 이 문장들의 연쇄가 텍스트를 구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고, 앞의 문장에 비추어 뒤의 문장을 해석한다고 하고, 따라서 텍스트 자체가 응집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청자 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추론에 의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역시 에펠이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 산업의 궁전을 본' 것을 '1889년 … 에펠탑을 선보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에펠은 1855년 만국박람회에서 '산업의 궁전'을 보았으며, 그 경험이 '1880년 에펠탑 건축을 가능케 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적 의미는 동일 구조의 반복(parallelism)에 의해 강화된다. 다음은 (1)의 ②~④를 단순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7) ② 만국박람회에서 …을 본 에펠은 1889년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③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 꿈을 키운 고이치는 2002년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④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 만난 청소년들은 …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7)의 ②, ③, ④는 주어로 제시된 사람(들)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주어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엑스포를 관람한 경험이 있음을 관형절의 내용으로 선택함으로써, 엑스포 체험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즉 원인이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7)의 ②~④는 모두 '[관계절 엑스포 체험] 주어 [서술부 뛰어난 업적을 이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일 구조의 반복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즉, '엑스포 체험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를 강화한다.

만일 (7)④가 단독으로 제시되었다면, 독자는 '대전 엑스포의 체험'이 뒤에 언급되는 내용('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음')과 과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는 독자가 텍스트에 응집성 있는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Brown G. and G. Yule, ibid., pp. 196-199).

도 있다. 동일 구조의 반복은 이러한 의문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은 '목록'(list)에서와 같은 '나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의 동일 구조의 반복은 나열된 항목들이 하나의 세계에 함께 속함을 부각시킨다. ④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의문이 ②~④에서 취하고 있는 동일 구조의 반복에 의해 ④가 ②, ③과 같은 부류의 상황으로 간주되면서 약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7)에 활용된, 수식어의 선택과 동일 구조의 반복이 '엑스포 체험'과 '뛰어난 업적, 혹은 꿈을 이루는 것'을 연결시키고[12] 그러한 연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짐을 살펴보았다. (1)의 화자는 (7)을 바탕으로 ⑤에 이르러 자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다음은 (7)에 (1)의 ⑤를 추가한 것이다.

(8) ② 만국박람회에서 …을 본 에펠은 1889년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③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 꿈을 키운 고이치는 2002년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④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 만난 청소년들은 …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⑤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8)⑤는 '박람회가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룬다'는 것을 기정 사실인 듯 표현하고 있다.[13] 주장을 내포절에 위치시키는 것은 반박할 수 없게 하는 담화상 전략의 하나인데,[14] (8)⑤는 이를 활용하고 있

12) Gee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일곱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construct or build)고 하고, 내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들의 위와 같은 '연결'(connection)을 언어가 수행하는 '일곱 가지 건설 과업' (seven building tasks)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Gee, J. P., op. cit., p. 17).

13) 이를 고려하면 (8)⑤의 주어 '박람회'를 수식하는 관형절은 표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4) Johnstone B., op. cit., p. 13.

는 것이다. (8)⑤에서 '박람회가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룬다'는 화자의 생각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②~④에서 수식어의 선택과 동일 구조의 반복에 의해 독자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이미 유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15]

(8)⑤는 ②~④와 달리, 나열된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내용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동일 구조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②, ③, ④의 주어에는 '은/는'이 결합해 있는 반면 ⑤의 주어에는 '이/가'가 결합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②, ③, ④와 ⑤는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가 다른 것이다.[16] ②, ③, ④는 각각의 주어를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화제로 제시한 것으로, 동일 구조를 반복하면서 일종의 '목록'(list)을 구성하고 있지만, ⑤는 주어에 '이/가'가 결합한 '문장초점' 구조로[17] ②, ③, ④가 구성하는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②, ③, ④가 평행하게 화제-논평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의의를 갖는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서 화자가 의도하는 '연결'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⑤가 문장초점 구조를 취한 것은 ⑤가 (1) 전체에서 사건제시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18]

---

15) ②~④에서 수립된 '연결'은 (1)⑦에서 다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16) 익명의 심사자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 구조'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②, ③, ④와 ⑤가 동일 구조가 아님은 적어도 정보구조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사 구조의 측면에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17) '은/는'과 '이/가'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견해도 다양하다. '은/는'과 '이/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비롯하여 '문장초점 유형' 등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최동주,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5호, 2012, pp. 25-58 참조.

18) 익명의 심사자는 (8)의 현상과 관련하여 '배경'(backgrounding) 및 '전경'(foregrounding)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이를 받아들이면, 화제-논평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②, ③, ④는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며, 문장초점 구조를 취한 ⑤가 사건제시문으로서 전경에 해당한

3) 문법적 장치들

(1) 시제

앞의 (5)는 1889년의 일로서 명백한 과거 상황이나, '-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에서는 과거 상황을 표현할 때 선어말어미 '-었-'이 쓰이며, 비과거(현재나 미래) 상황인 경우에는 '-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5)는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린다. 다음은 (5)를 단순화한 것이다.

(9) ?에펠은 **1889년**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9)는 문장 언어학에 근거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9)가 주목되는 것은 담화에서 (9)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앞이나 뒤에 다른 표현이 오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는 (1)의 ②~⑤를 단순화하여 제시한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②… 에펠은 … **1889년**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③… 고이치는 **2002년** …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④… 청소년들은 **오늘날** …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⑤…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10)②~⑤에는 모두 '-었-'이 출현하지 않은 비과거형만 나타난다. ④는 '오늘날'의 일이므로 현재 상황이고,[19] ⑤는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20] 여기의 비과거형은 문장 언어학의 설명에 부합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④에 쓰인 '-고 있-'은 ②, ③ 및 ⑤와의 시점(時點)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 텍스트의 출판(2012. 4. 23.)은 엑스포 개막(2012. 5. 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다. 그러나 ②와 ③은 과거 상황에 비과거형이 쓰인 것으로, (9)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이면 문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10)과 같은 맥락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의 논의에서 주로 서사 담화를 대상으로 검토되었는데, '역사적 현재' 혹은 '생생한 표현'으로 불리었으며, '두드러지게 하기' 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21]

(10)의 ②, ③ 역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이 서사 담화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②,③의 비과거형은 다른 기능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10)의 ②와 ③을 과거형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11) ②' … 에펠은 … **1889년** 에펠탑을 선보였습니다.
③' … 고이치는 **2002년** … 노벨 화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④ … 청소년들은 **오늘날** …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⑤ …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11)의 ②', ③'은, (10)의 ②, ③에서와 달리, 각각 분리되고, ④와도 분리되는 느낌이 강하며, 마치 별개의 상황의 나열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11) 역시 (10)에서와 같은 동일 구조의 반복이나, 시제가 다름으로 인하여 (10)에서와 같은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다. 과거 시제로 표현된 상황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계기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과거 시제의 담화적 기능도 (11)의 ②, ③, ④를 별개의 상황의 나열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21) 이인영, 「소위 "역사적 현재"에 관하여-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8, 1993, pp. 135-141 참조.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검토되었는데, 대부분 서사 담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2. ; 김호정, 「한국어 교육 문법의 시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그렇다면 (10)의 ②, ③이 과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과거형을 사용한 것은,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뿐만 아니라, (11)에서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②, ③, ④가 계기적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황들이 아니라, 동일한 의의를 갖는 객관적 사실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며,[22] ②, ③, ④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대높임법

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높일 때 높임의 정도에 따라 종결형식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다음은 (1)의 ①~③를 옮긴 것이다.

(12) ① '꿈을 가져라' 백 번 말하기보다
'꿈의 박람회' 한 번 보여주세요!

②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본 구스타프 에펠은 1889년 다시 열린 파리박람회에서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③ 1970년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운 다나카 고이치는 2002년 샐러리맨 과학자로서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12)는 제목인 ①에는 '해요체'가 쓰였으며, ② 이하 본문에는 '하십시오체'가 쓰였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1)의 의도된 독자는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이므로, 여기에 '해요체'와

22) 단, 이들의 배열은 과거에서 현재,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가 쓰인 것은 의도된 독자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런데 길라잡이의 다른 텍스트에서는 의도된 독자가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인 경우에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13) 태양열을 이용한 전시장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친환경 교과서와도 같다. 관람 전 **자녀에게** 인지시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자.(길라잡이 p. 9, '관람이 보다 즐거워지는 6가지 노하우' 3)

(13)은 '자녀에게'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를 가진 부모를 의도된 독자로 삼은 발화이나, (12)와는 달리,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 않은 예이다. (13)은 (12)에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이 의도된 독자가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다른 요인도 관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3)은 또한 (12)에서의 상대높임법 출현 양상을 올바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길라잡이'의 다른 텍스트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길라잡이'에 실린 다른 텍스트의 대부분은 다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4)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체험 교육'에 있다.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눈높이 교실이 전시관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 ……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반드시 체험해 보자.(길라잡이 p. 9, '관람이 보다 즐거워지는 6가지 노하우' 중에서)

(14)에 보이는 '있다', '보자' 등은 '해라체'와 형태상으로 동일하나, '길라잡이'와 같은 안내서의 화자가 독자를 '아주낮춤'의 등급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심

23)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임의로 섞여 쓰이는 것은 아니며, 뚜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영근에서는[24] 신문, 잡지, 소설 따위에서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쓰이는 (14)에서와 같은 형식을 '하라체'라고 부르고 명령형을 제외하면 '해라체'와 구별이 안 되나, '아주낮춤'의 뜻이 없으며, '높임이나 낮춤의 등급이 중화된 독립된 문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25] 본고에서도 (14)에서와 같은 형식을 '해라체'와 구별하여 '하라체'라고 부르기로 한다.[26]

'길라잡이'에는 (1) 외에도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텍스트가 있다. 다음을 이를 보인 것이다.

(15)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표면의 71%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인구의 70%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지요.(길라잡이 p. 2, '살아 있는 전시장, …' 중에서)

(15)에서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15)는 특정 독자를 의도된 독자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14)와 마찬가지이다. (12)와 (13)은 청소년을 자식으로 가진 부모를 의도된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대높임법이 달리 나타난 것이며, (14)와 (15)는 특정 독자를 의도된 독자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역시 상대높임법이 달리 쓰인 것이다. 동일한 지위의 독자를 같은 안내서에서 임의로 높이기도 하고 높이지 않기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의도로 (12), (15)에서처럼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일까?

---

24)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1, pp. 340-341.

25) (12)와 뒤의 (15)에서 보듯이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쓰이는 일도 있으므로 '중화된' 문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6) 이는 '해라체'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적 용어일 뿐이다. '길라잡이'와 같은 텍스트에서 명령문일 때 '하라' 형식이 쓰이는 일은 흔치 않다는 점에서 '하라체'라고 부르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앞의 (15)가 있는 텍스트는 제목 '살아 있는 전시장, 엑스포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초대'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며, (1)은 '엑스포 체험'을 '제안' 또는 '권유'하기 위한 글이다. 반면 (13)과 (14)는 각종 시설 및 다양한 행사에 관한 '소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시한 텍스트이다. '초대'나 '제안/권유'는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성격이 강한 '소개'나 '정보 제공' 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차이가 상대높임법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텍스트의 목적에 따라 독자와의 거리가 달라지며, 화자가 독자와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길라잡이의 텍스트 중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다른 경우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길라잡이의 Q&A란에 나오는 예이다.

(16) ㄱ. Q박람회가 끝나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A앞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 (p. 19, 우측 날개)
ㄴ. Q보통권과 특정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특정일권은 개막일, 폐막일 등 특별한 날에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합니다. … (p. 35, 우측 날개)

(16)은 대화 형식의 텍스트에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쓰임을 보여 준다. 질문(Q)은 '해요체'로 되어 있으며, 답변(A)는 대부분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나, '해요체'를 사용한 경우도 한 군데 보인다. 대화 형식의 텍스트는 상정된 독자의 발화가 텍스트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 따라서 (16)은 화자가 독자와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본고의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텍스트의 뒤에 덧붙여진 글들이다(*은 비문 표시가 아님).

(17) ㄱ. … 또한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핸드백이나 휴대품은 가급적 타고 온 차량에 두고 입장하면, 입장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관람을 위해 우리 모두 꼭 지켜요!*(p. 37, '박람회장 반입 금지 물품')
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p. 51, 하단)
ㄷ. *자세한 사항은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42, 중단)

(17)은 제시된 정보 뒤에 덧붙인 텍스트로, 앞에 * 표를 붙였으며, 글자 크기를 달리 해서 앞의 텍스트와 구별하고 있다(이탤릭체로 표시한 것은 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17ㄱ,ㄴ)은 '해요체'를 사용하였으며, 느낌표를 붙였는데, 이는 '해요체'가 좀더 정감있는 표현임을 시사해 준다.[27] (17ㄱ)은 '우리'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청유문임을 알 수 있고, (17나)는 명령문인데, (17ㄴ)과 달리, (17ㄱ)에 '-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17ㄷ)은 평서문의 형식으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17ㄱ~ㄷ)은 모두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당부'도 '초대'나 '제안/권유'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개'나 '정보 제공'보다는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7)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선택된다는 본고의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7)과 같은 성격의 텍스트가 모두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28] 따라서 '당

27) 남기심 · 고영근, 앞의 책, p. 342.
28) 다음은 그 예들을 보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자.'(p. 41)

부'의 표현에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나, 반드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쓰인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18)은 (15)가 실려 있는 '길라잡이' p. 3 우측 날개에 제시된 예로, 설명이 쉽지 않은 예이다.

(18) 여니와 수니는 바다와 연안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마스코트입니다. … (p. 3, 우측 날개)
(19) 세계박람회는 …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글로벌 이벤트입니다.(뒷표지)

(18)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초대'나 '제안/권유', 혹은 '당부'를 목적으로 한 텍스트가 아니며, '소개' 또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에 가깝다. (18)은 앞에서 살펴본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의 견해를 약화시키는 예이기는 하나, '초대'를 목적으로 하는 (15)와 같은 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초대'의 맥락에서 (18)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29] (19)도 '소개' 또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이 실린 뒷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18)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다음의 예들에도 '해요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앞의 경우들과는 달리 설명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친절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관광 숙박 가이드북]을 참조.'(p. 50)

29) 아울러, 담화 현상은 문장 언어학에서의 현상과 달리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맥락에 따라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 Press, 1983, p. 106 참조. '길라잡이'보다 먼저 간행된 브로셔 '2012 여수세계박람회'(2011. 11. 25.)에는 '소개'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가 많이 실려 있으나, 전면적으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20)가. 이렇게 즐기세요! (p. 9, 10, 11, 12, 17, 18)
나. 엑스포 여권으로 100여 개국 여행하세요(p. 39, 중단)

(20가)는 '길라잡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고정란의 명칭이다. 고정란의 명칭도 텍스트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는 하나, 텍스트의 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목과는 위상이 다르다. '하라체'가 사용된 텍스트와는 달리 (20가)에 '해요체'가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나)는 pp. 36-39에 걸쳐 제시된 표형식의[30] '박람회장 정보' 텍스트 옆에 나타난 표현으로, 고정란의 명칭은 아니나, 세로로 제시되는 등 텍스트와 명백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의 명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텍스트의 목적에 따라 독자와의 거리가 달라지며, 화자가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할수록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살펴보았다. 상대높임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길라잡이'를 검토하여 동일한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텍스트의 목적에 따라 상대높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상대높임법이 문체적 차이를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함을 의미한다.[31]

앞에서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사이의 차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함께 나타나는 텍스트에서도 어느 정도 분명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21)ㄱ.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현재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본 적 있나요?

30) 난 사이를 구분하는 가로행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표와는 차이를 보인다.

31) 상대높임법의 이러한 문체적 기능은 물론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에서 유래한 것이다.

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22)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21), (22)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함께 쓰인 '살아 있는 전시장, 여수엑스포로!'(길라잡이 pp. 2-3)에서 의문문과 명령문만 뽑은 것이다. (21),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살아 있는 전시장, 여수엑스포로!'에 쓰인 의문문과 명령문에는 '해요체'만 보인다.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는 흔히 '비격식체'와 '격식체'로 설명되나, (21), (22)는 상대높임법의 선택이 문장종결법의 영향도 받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특징이 좀더 분명히 드러나는 텍스트는 Q&A이다. '길라잡이'에 실려 있는 Q&A에서 질문은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였으며, 답변에는 다음 예를 제외하면 모두 '하십시오체'만 보인다.

(23) '전기간권은 …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 예매 페이지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p. 35, 우날개 '그 외 입장권 Q&A'의 세 번째 답변)

(23)은 Q&A의 답변(A)에 나타나는 유일한 '해요체'의 예로, 명령문이다. (23)을 제외하면 답변 부분에 쓰인 표현들은 모두 평서문이며,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텍스트의 목적에 따른 상대높임법의 차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문문'은 전형적으로 '질문'을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이며, '명령문'은 '지시, 부탁' 등을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이다. 양자 모두 독자 반응 유도를 전형적 기능으로 하는 문장종결법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독자와의 거리가 평서문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32] 비격식체는 '친근하고 … 정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자

32) 발화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부, 부탁'의 기능을 갖는 (17ㄷ)과 같은 예에 '하십시오체'가 쓰인 것을 고려하면, 어떠한 종

할 때'[33]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의문문'이나 '명령문'에 '해요체'가 쓰인 것은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하는 상황에서 '친근하고 정감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함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평서문에 '해요체'가 쓰인 예이다.

(24)가. 그야말로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지요.
나. 21세기 인류의 보고인 '해양'과 관련된 기술과 지혜를 모으는 축제인 셈이지요.
다. 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관람객 수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셈이죠.
(25) 100여개 참가국과 … 그리고, 각 기업 등이 이 주제에 맞춰 전시를 준비한 것이고요.

(24), (25)도 '살아 있는 전시장, 여수엑스포로!'에 나오는 표현들이다. (24)에서는 표현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24ㄱ)에서는 '해구(海球)'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24ㄴ)에서는 '21세기 … 기술과 지혜를 모으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으며, (24ㄷ)은 '한일월드컵 관람객 수의 두 배를 훨씬 넘는' 등의 표현이 과장의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4] (24)의 예들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관적 의미의 종결표현 '… 셈이지요(죠)' 역시 객관성이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25)는 '부연' 설명하는 위치에 쓰였다는 점에서 역시 표현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4), (25)를 제외하면 이 텍스트에 나오는 평서문은 14개로 모

결형식이 쓰였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 222.

34) 여수세계박람회의 행사기간은 93일이었다. 한일월드컵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 치러졌으며, 수많은 인파의 거리 응원이 있었음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관람객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두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고 있다. 이는 '길라잡이'의 화자가 '초대, 제안/권유, 당부' 등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텍스트인 경우 평서문에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으며, 표현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한 경우 등과 같이 좀더 친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평서문에서도 '해요체'를 선택하였음을 말해 준다.[3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목적 그리고 문장종결법의 전형적 기능 등이 상대높임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화자가 상정하는 독자와의 거리가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36]

4) 단어의 선택과 세계, Discourse

담화에서의 단어의 선택은 담화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화자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다음을 보자.

(26)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놀라운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2050년 미래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즐기는 생생한 교육의 장입니다.

---

35) 각주 29)에 소개한 브로셔 '2012 여수세계박람회'(2011.11.25)에도 평서문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문문과 명령문은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냉장고 사용설명서에서도 평서문에는 '하십시오체'를, 의문문과 명령문에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내서나 사용설명서 같은 텍스트에서 이러한 양상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청유문에는 '-읍시다'와 '-어요'가 다 나타나나 예가 많지 않아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좀더 격식을 차리는 텍스트에서는 명령문이나 의문문에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36) 따라서 상대높임법의 선택은 '청자(또는 해석자)의 관여 정도'(interpreter involvement)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Verschueren, J., op. cit., p. 133 참조. 청자와의 관계, 매체의 성격, 담화의 목적 등 담화의 맥락도 상대높임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해체'가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는 담화의 맥락에 따라 가능한 선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⑦ 미래의 주역들이 세계박람회를 체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6)의 ⑥은 어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이나,[37] 뜻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놀라운 상상력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50년 미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A는 B이다'와 같은 문장 구조의 한 기능은 A를 B로 범주화하는 것인데, ⑥은 이를 취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범주화하고 있다.[38] '길라잡이' p. 19 '맞춤식 추천 관람 코스'에는 '기업/전문가 동선', '연인들을 위한 동선' 등도 제시하고 있으며, p. 29에서 관람객을 '학생이나 일반인'으로 분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수세계박람회는 다양한 관람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교육의 장'으로서만이 아닌, 복합적 의의를 지니는 행사이나, ⑥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1)의 의도된 독자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임을 의식하여 특정 세계를 중시한 결과이다.[39]

(26)⑦의 '미래의 주역들'은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지칭의 선택은 지칭되는 대상과 관련되는 특정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지칭되는 대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40] (1)의 화자는 (26)⑦에서

37) '놀라운 상상력과 기술력으로'가 어떠한 문장 성분인지 분명치 않다. 이처럼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담화에 쓰이는 현상을 단순한 오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Verschueren은, 구조적으로 복잡해질 경우, 의미가 조직의 원리를 맡기 때문에 문법 규칙의 역할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Verschueren, J., ibid., pp. 132-133).

38) '교육의 장'을 수식하는 '우리 청소년이 직접 보고 즐기는'과 '생생한'도 역시 범주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9) Gee는 이처럼 언어 표현에 의해 특정 대상을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게 하는 것도 언어가 수행하는 '일곱 가지 건설 과업'(seven building tasks)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Gee, J. P., op. cit., p. 17).

40) Verschueren도 "가장 단순한 지칭 행위조차도, 그것이 시사하는 강조성으로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지칭을 사용함으로써, 의도된 독자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도된 독자들의 자녀를 '미래의 주역들'로 지칭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환기시킴으로서, ⑥에서 '교육의 장'으로 범주화한 것과 함께, '엑스포의 체험'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도 가진다. 어떤 단어('미래')의 선택은 그에 대비되는 다른 항('현재')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며,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즉 '현재'에 대해 말하지 않음)에 의해서도 그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것(즉 '현재'에 대해서 말함)과 같은 정도의 의사소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41]

(26)의 ⑦에서 청소년의 엑스포 체험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 산이 될 것'으로 표현한 점도 주목된다. '개인의 밝은 미래나 영예'를 언급하지 않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 즉 '국가에 기여함'과 연 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길라잡이'의 화자가 엑스포 조직위원회, 즉 (한시적이기는 하나) 정부 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1)이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엑스포 관람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이라면 ⑦과 같은 표현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⑦이 화자가 정부기구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개인의 밝은 미래 혹은 영예'는 명시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으나 (unsaid), 무시된 것은 아니다.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생

인하여,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바를 '복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고 한 바 있다(even the simplest acts of referring, because of the highlighting they imply, go far beyond 'copying' what is 'out there')(Verschueren, J., op. cit., p. 180).

41) Verschueren, J., ibid., p. 58.

각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밝은 미래 혹은 영예'는 그러한 통념에 기대어 독자 스스로 추론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것이다.[42] '길라잡이'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1)의 ③에서 '다나카 고이치'가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것으로 표현한 것이나, ④에서 '1993년 …… 꿈돌이를 만난 청소년들'이 '오늘날 세계 정상의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일관된 선택은 (1)이 정부 기구의 'Discourse'를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길라잡이의 화자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하는 대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언어 표현의 선택을 통해 특정 부류의 독자를 의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특정 세계가 부각되기도 하며, 화자가 어떠한 'Discourse'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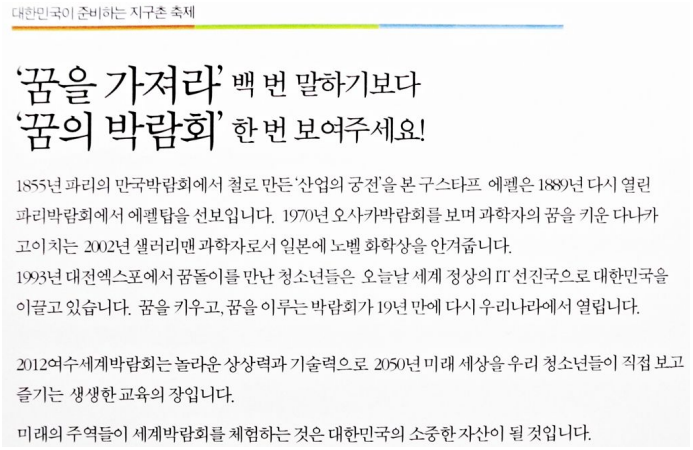
또한 담화에서의 언어 현상이 문장 언어학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일 구조의 반복과, 시제, 높임법 등이

42) Gee는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사람들은 '전형적 이야기' (typical stories)에 기초하여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러한 '전형적 이야기'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형적 이야기 혹은 모습', 즉 세계에 관한 '단순화되고, 종종 무의식적인,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을 '상정된 세계'(figured world)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정된 세계'는 경험을 통해 배우며, 그 경험은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적 집단에 의해 이끌어지고 정형화된다. '상정된 세계'는 '문화적 모델', '담화 모델', '민중 이론', '도식' (schema), '프레임'(frame), '스크립트'(script)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Gee, J. P., op. cit., pp. 70-76).

그러한 사례들이다. 동일 구조의 반복은 화자가 의도한 연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과거 사건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동시에 동일한 의의를 갖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화에서는 텍스트의 목적, 문장종결법의 유형 등도 상대높임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는데, 화자가 상정하는 독자와의 거리가 이를 결정하는 공통적 요인으로, 텍스트의 목적이 '초대', '제안(권유)', '당부' 등일 때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선택하였고, 이때에도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여수엑스포 길라잡이'를 분석하여 언어 표현들이 실제의 사용 맥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어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장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의 언어 사용, 즉 담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자료: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의 뒷표지에 실린 텍스트 원문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지구촌 축제

'꿈을 가져라' 백 번 말하기보다
'꿈의 박람회' 한 번 보여주세요!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본 구스타프 에펠은 1889년 다시 열린 파리박람회에서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1970년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운 다나카 고이치는 2002년 샐러리맨 과학자로서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꿈돌이를 만난 청소년들은 오늘날 세계 정상의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19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놀라운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2050년 미래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즐기는 생생한 교육의 장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세계박람회를 체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엑스포 길라잡이』, 2012(2판 2쇄).

2. 논문

김호정, 「한국어 교육 문법의 시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수진,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연구 -담화 구조와 시제 사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인영, 「소위 "역사적 현재"에 관하여-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8, 1993, pp. 101-151.

최동주,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5호, 2012, pp. 25-58.

Olshtain E. & M. Celce-Murcia, "Discourse Analysis and Language Teaching", in Schiffrin D., D. Tannen, and H. E. Hamilton (eds.) (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ing, 2001, pp. 707-724.

3. 단행본

고영근,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1.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2003.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2.

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 Press, 1983.

Cook, G., *Discourse*, Oxford Univ. Press, 1989.

Gee, J. P.,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 Theory and Method* (3rd edition), Routledge, 2011a.

Gee, J. P., *How to do Discourse Analysis – A Toolkit*. Routledge, 2011b.

Johnstone B., *Discourse Analysis*(2nd edition), Blackwell, 2008.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Verschueren, J., *Understanding Pragmatics*, Hodder Education, 1999.

[Abstract]

The Selection of Word, Sentence Structure, and Grammar in Discourse.

- Discourse Analysis of *Yeosu Expo Gillajabi* -

Choi, Dongj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unction of the selection of word, sentence structure and grammar in discourse through analysing 'Yeosu Expo Gillajabi (Guid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1) the writer uses intertextualiy to express his/her intent effectively, 2) uses sentence strucure and parallelism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events or notions and intensify it, 3) selects grammar(tense and hearer-honorific) for various discourse effects(for example, for making expression vivid, for intensifying, or adjusting distance from readers), 4) and exposes who are intended readers and what Discourse he/she is using through selecting words and phrases. Based on the above facts, this paper argues that sentence grammar itself can not explain the language use adequately, therefore, we need to use the method of discourse analysis not only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for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ey words : discourse analysis, intertextuality, parallelism, tense, honorifics, Discourse

최동주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10-9812-2125
전자우편: djchoi@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